

최지만·김광현 'PS'·류현진 '14승'...김하성·박효준 '데뷔'

탬파베이·세인트루이스 가을야구 진출

토론토·샌디에이고·피츠버그 포스트시즌 좌절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볼 수 있는 코리안 메이저리거는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과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두 명이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도 막자를 노렸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박효준(피츠버그 파이리츠)은 일찌감치 소속팀의 탈락이 확정됐다.

최지만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가장 먼저 가을야구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난달 23일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된 탬파베이는 사흘 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달성했다.

3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자 2년 연속 지구 우승이다. 지난해 LA 다저스에 막혀 월드시리즈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던 탬파베이는 다시 한번 정상 등극을 노린다.

최지만은 올 시즌 고질적인 햄스트링으로 세 차례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어려움 속에서도 83경기 타율 0.229, 11홈런 45타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시즌 최종전이었던 4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도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냈고, 7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양키스 채드 그린에게 우익수 방면 2루타를 때려냈다. 탬파베이는 0-1로 패했지만 최지만은 장타로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하며 포스트시즌을 위한 타격감을 조절했다.

탬파베이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승리 팀과 8일부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김광현의 소속팀 세인트루이스도 지난달 29일 가을야구 진출을 확정했다. 빅리그 데뷔 첫 해인 지난해 가을야구 무대를 경험한 김광현은 올해도 포스트시즌에 오르게 됐다.

김광현은 올해 허리 부상으로 고전하면서도 27경기에 나와 7승7패 평균자책점 3.46의 성적을 냈다. 막바지 볼



펜 투수로 보직을 옮기고,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변수가 많았지만 막판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벌이며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세인트루이스는 7일 LA 다저스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단판승부를 갖는다.

토론토와 샌디에이고, 피츠버그는 모두 짐을 싣다.

정규시즌 마지막날까지 가을야구 희망을 놓지 않았던 토론토는 시즌 최종전이 이날 류현진을 내세워 반전을 노렸다.

류현진은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12-4 대승에 힘을 보탤다.

그러나 토론토는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2장을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에 내주고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류현진은 14승으로 시즌을 마쳤다. 개인 한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을 이뤄냈지만 패배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가장 많은 10패를 기록했다. 부상으로 한 경기만 등판했던 2016년(평균자책점 11.57)을 제외하고 평균자책점도



가장 높은 4.37로 마무리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김하성과 박효준은 모두 다음 포스트시즌을 기약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력 보강으로 우승을 노렸지만, 포스트시즌 티켓조차 따내지 못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첫 해를 117경기 타율 0.202, 8홈런 34타점 6도루로 마쳤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백업 역할을 맡아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이날도 샌프

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6회말 3루대수비로 투입됐다. 8회 1사 1, 2루에서 얻은 타격 기회에서는 볼넷을 골라냈다.

박효준이 속해있는 피츠버그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로 시즌을 끝냈다.

지난 7월17일 뉴욕 양키스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뒤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된 박효준은 45경기 타율 0.195, 3홈런 14타점으로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정리했다.

뉴시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정향누리배 단체전 준우승

김천시청 꺾고 여자 일반부 단체전 은메달 획득



화순군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2021년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1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1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1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1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1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1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1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1 정향누리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은메



박인비·고진영, 아쉬운 준우승

슈라이트 클래식서 마지막 18번홀서 버디 놓쳐 우승 좌절

박인비(33)와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슈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서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인비는 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돌체 호텔 시부 베이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쳐 2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00타를 친 박인비는 고진영과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셀린 부티에(프랑스)는 14언더파 199타를 기록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인비와 고진영은 3라운드 중반 이후까지 선두를 달렸지만, 후반 들어 단 1타도 줄이지 못해 고개를 떨궜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18번홀에서 버디를 잡지 못한 것에 진한 아쉬움을 보였다.

박인비는 "오늘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 특히 어제, 이

틀 전에 비해서 퍼트도 안 떨어지고 샷도 흔들려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게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주를 봤을 때 많은 발전이 있었다.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가 3주째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마지막 홀 이글 퍼트에서 투 퍼트만 해도 연장전이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부티에는 2019년 2월 ISPS 한다빅 오픈 이후 LPGA 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유소연(31)과 김세영(28)은 8언더파 205타로 공동 14위에 올랐다.

뉴시스



빅리그 데뷔한 피츠버그

박효준, 내일 금의환향

7년만에 메이저리그 데뷔

올해 메이저리그(MLB)에 데뷔한 박효준(25·피츠버그 파이리츠)이 오는 6일 귀국한다.

박효준은 에이전트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즈팩코퍼레이션(대표 류현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준 선수가 6일 인턴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박효준은 2015년 뉴욕 양키스 입단 후 7년만인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7월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되면서 본격적으로 빅리그로 몸담았다.

박효준은 국내에서의 적당한 휴식과 안정을 취한 뒤 내년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과 몸 만들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메이저리그 45경기에 출전한 박효준은 타율 0.195(128타수 25안타)에 3홈런 14타점 16득점의 성적을 올렸다. 출루율은 0.297을 기록했다.

뉴시스

세한대학교 유도부, 추계연맹전 금빛 메치기

전국남여대학유도연맹전서 금 1개 은 1개 동 2개 획득



세한대학교 유도부가 추계연맹전에서 금빛 메치기를 선보였다.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유도부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2021년도 추계 전국남여

대학유도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남대부 개인전 -66kg급에 출전한 김찬(3년)은 준결승에서 이지형(정주대)을 맞아업어치기로 가볍게 제압하

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위덕대학교 이민석을 만나 한팔 업어치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81kg급 최승일(1년)은 최낙일(한국체대)와의 결승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골든스코어에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60kg급 하정빈(2년)은 4강에서 조환균(경기대)에 한판패로 동메달을 획득했고, 세한대는 무제한 7인조 단체전 준결승에서 정주대에 1:4로 패하며 3위를 차지했다.

세한대 노박환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이 몇 번의 대회를 통해 잃었던 경기력을 되찾은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전국체전을 대비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전국체전 일반부가 취소되어 너무 아쉽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남=조대호 기자

손흥민-황희찬, 英 BBC 선정 EPL 7라운드 베스트11

왼쪽 미드필더·최전방 공격수에 뽑혀



한국 축구대표팀 골잡이 손흥민(29·토트넘)과 황희찬(25·울버햄튼)이 영국 방송 BBC 선정 주간 베스트11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BBC는 4일(한국시간) 축구전문가 가스 크록스가 선정한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라운드 이주의 팀을 발표했다.

EPL 주간 이주의 팀에 한국인 선수가 동시에 포함됐다. 3-4-3 포메이션에서 손흥민은 왼쪽 미드필더에, 황희찬은 최전방 공격수에

점 12)로 올라섰다.

크록스는 "아스톤빌라와의 어려운 경기에서 손흥민이 중요한 도움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황희찬은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첫 멀티골로 울버햄튼의 2-1 승리를 견인했다. EPL 2, 3호골이다.

크록스는 "울버햄튼이 라울 히메네스와 함께할 골잡이를 찾았다. 황희찬의 두 골은 모두 훌륭했고, 모두 히메네스의 도움을 받았다. 황희찬의 마무리 능력은 울버햄튼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스트11 공격수에는 황희찬과 함께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필 포든(맨체스터시티)가 올랐다.

미드필더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호이비에르, 앤드루스 타운센드(에버턴), 베르나르도 실바(맨시티)가, 수비수에는 아스필리쿠에타, 트레보 찰로바(이상 첼시), 디에고 요렌테(리즈)가 포함됐다. 골키퍼는 다비드 라이아(브렌트포드)다.

뉴시스